기획재정부 **보도참고자료** 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2. 8. 30.(화)

담당 부서	예산실 복지예산과	책임자	과 장 박재형 (044-215-7510)
		담당자	사무관 원선재 (consecra@korea.kr)

□ **사회복지 지출은 5.6% 증가해 작년(5.4%) 보다 높습니다.**

□ **의무지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규모를 확대했습니다.**

< 보도내용 >

□ '22.8.30.(화) 경향신문은 “복지 살렸다지만 증가율은 최저… 재정역할 축소” 제하 기사에서 ‘❶복지지출 증가율이 4.1% 증가에 그쳐 올해 증가율과 비교시 절반도 안된다’고 보도

□ '22.8.30.(화) 한겨레 신문은 “복지예산 늘렸다더니...문재인 정부 증가율의 절반에 그쳐” 제하 기사에서 ❷그나마 늘어난 복지지출도 법률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지출이 대부분이며, 정부의지가 반영된 재량지출은 감소했다’ 라고 보도

< 기획재정부 입장 >

[복지지출 증가율 관련(❶)]

□ 복지지출 중 코로나로 한시 증액된 보건지출을 제외한 **사회복지지출**은 **전년보다 5.6% 증가**하여, **작년 증가율 5.4%** 보다 **높은 수준**

○ 특히, **기초수급자 · 노인 · 장애인 · 아동 · 보육** 등 **취약계층 관련 핵심 복지지출**은 **두자리 수**로 **증가**하여 **전년 증가율**(8.6%)를 **상회**

[사회복지지출 중 의무지출 관련(❷)]

□ **의무지출 사업**도 **자연 증가분 뿐만 아니라**,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**적극적인 제도개선**을 통해 **예산을 확대**

<**주요 사업 예시**>

·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(5.47%, 4인) 인상: +0.6조원

· 생계·의료급여 재산 기준을 완화해 4.8만 가구 추가 지원: +0.2조원

· 주거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(중위 46→47%) 확대: +0.1조원

·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+23.3% 수준 인상: +0.04조원

·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확대(10.8→11.5만명): +0.3조원

· '15년 이후 처음으로 장애수당 단가 인상(월 4→6만원): +0.1조원

· 한부모(중위 52→60%) 및 청소년 한부모(중위 60→65%) 양육비 지원 기준 상향: +0.1조원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